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청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조금은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신윤식

나 잘났다고 하기 전에
우리 눈을 들어
나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에
돌아서면 두 마음 두 얼굴이 되는
치졸한 변덕과 위선으로 가득하면서
뭐가 잘 나 스스로를 덧칠하는지

참된 길 하나 보지 못하면서
이 길로 가면 될까 저 길로 가면 될까
궁리하고 고민하는 어리석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에
나만이라는 아집만 쌓이니
결국 남을 것은 빈껍데기 뿐

바람이 부는 이유를 아는가.
바람이 가는 길을 아는가.

겨자씨보다 못한 지식 내놓지 말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도 하지 말자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싶으나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놀라운 다른 세계가 있으니
돌아보며 조금은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2.15

발행호수 제21권 50호

인자가 올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가 이르면 밤에 들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함께 멧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가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누워 있는 것은 동일하고 멧돌을 돌리고 있는 것도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며 그 다름의 가치가 인자가 오셨을 때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자가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와 연결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인자가 오셨을 때에도 믿음 있는 자만 데려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본문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 믿음이나?’의 문제는 외적인 행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은 믿음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믿음의 여부도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외적인 행동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행동을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의 올 때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보자면 인자의 올 때를 믿고 기다리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과 삶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

주일오전설교

인자가 올 때

눅 18:1-8

나?’라고 물을 때 답은 분명합니다.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 세상의 실상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세상의 실상이 그렇다면 인자가 오시기 전의 세상의 실상 역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믿음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풍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본문의 비유는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비유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내용 또한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워 할 정도로 찾아가 번거롭게 함으로써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절과 8절을 연결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끈질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서도 그 같은 차이가 언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도에 더 깊은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부딪힐 세상의 현실이 그들을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7:37절에 보면 **“주여 어디오니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심판과 고난을 피해보고 싶어 서 **‘어디오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체가 있는 곳에는 자연히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죽은 자, 즉 버림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면 심판 역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제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7:25절에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현실이 제자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에 그 원한을 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에 담긴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인간의 고집이 담긴 행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생각해 본다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는 말씀은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원한 때문입니다. 원한을 풀고 싶은 간절함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면 그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어쩌면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판장이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

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이득을 좇아 뇌물을 받아가며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기 때문에 가난했고 따라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형편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조차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부에게 원한이 없었다면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부에게 있었던 원한이 과부로 하여금 재판장이 괴로워 할 정도로 자주 찾아가게 한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재판장에게 무시를 받는 것은 개의치 않았습다. 그보다 원한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장에게 무시를 받는 것까지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판장에게 무시 받는 과부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장차 제자들이 겪어야 할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제자들을 무시하고 버려두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어서 제자들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자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징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조롱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고 이웃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했던 방주가 생명이었음이

드러나는 심판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인자가 오실 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때가 곧 하나님이 신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인자가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자는 원한을 가진 과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복음을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알아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높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조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힘든 현실에 방치해 두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에 의한 기다림입니다. 노아가 심판을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늘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결국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인자가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인자의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으로 풀어 주십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생명이며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신자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의 현실이 노아나 롯의 때처럼 저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위해 살 뿐입니다. 인자의 올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역시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일 뿐입니다.

믿음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해 절감하게 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 말고 원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차원이 다른 응답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일오후설교
시 143:1-12

주를
사모하는 자
(147장 11.24일 설교)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진실과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실과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불의와 죄 밖에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러한 자기의 실상을 알기에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열심과 정성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것이고,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불의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죄와 불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내세울 의와 진실은 없지만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의지해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 죽어가면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구하는 강도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죄 없이 죽으시는 주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주의 성실과 의를 응답해 달라고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자가 원수로 인해 핍박을 받는 형편에 처한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는 자신이 처한 형편을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신자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불의와 죄를 행하는 자라는 것

입니다. 진실과 의는 겨자씨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고 해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신을 근거로 한다면 심판이 마땅하지만 주의 진실과 의를 근거로 한다면 심판에서 건짐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자의 고백대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심판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6절)**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일한 희망, 즉 심판에서 건짐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진실하심과 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신자가 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의함을 안다면, 그래서 원수가 자신을 핍박하고 마치 자신을 죽은 지 오랜 자처럼 암흑 속에 가두어 준 모든 형편들도 불의를 행한 자신에게 당연한 것을 깨닫는다면 4절의 고백처럼 그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그 마음 또한 참담할 것입니다. 힘든 형편으로 인한 참담함이 아니라 불의함 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신으로 인한 상함과 참담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신자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자기 열심이나 정성이나 행위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실과 의로움만이 자신을 심판에서 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8절)**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원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자의 기도라고 힘들 정도로 평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본성조차 초월하게 한 것이 바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고 주를 사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자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환난에서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하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10절). 저자는 이것이 자신의 영혼이 환난에서 건짐 받는 길임을 안 것입니다.

저자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 내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주를 사모하게 되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 주를 찾고 기도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주를 찾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한다면 그는 주의 눈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과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주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필요로 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매일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실하심과 의라는 것을 알기에 온전히 주를 사모하는 자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유다 또한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도 유다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유다 모두를 동일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나 유다의 멸망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유다도 이방 나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유다를 택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유다를 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어떻게 다루시고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46:26절에 보면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렇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망한다고 해도 그 땅은 계속 보존되어서 사람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28절에서 유다를 흘렸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도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법도대로 징계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케 하셨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징계하기 위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 나라가 멸망하지만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 기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으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징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징계로 인해 피곤하고 힘든

수요일설교

렘 47:1-7

블레셋의 멸망 예언

(101 11.27 설교)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이방 나라는 단지 땅에서 생존하게 해주시는 것이 전부이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방인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시내를 이루어 휩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입니다. 멸망을 도구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그들의 힘과 상관없이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현재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러한 시각으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블레셋은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블레셋을 도와줄 자까지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자랑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 나라처럼 세상에 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한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목할 것은 세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신자의 시각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무너지는 운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세상에서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보존되는 땅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처럼 이 땅에서 생존하는 문제에 마음을 두게 되면서 자신을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는 오해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 운명이 고정되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복 아닌 것을 복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은 길로만 가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에 짜증을 냅니다. 구원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처럼, 블레셋처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멸망의 장소라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동안만 사람이 사는 땅으로 허용하실 뿐입니다. 신자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징계하시고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주께 붙들어 놓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나 또한 심판이 마땅함을 깨닫게 하시며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땅의 것을 구하고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2장
교 독 : 86(계14장)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86장
성 경 : 눅 18:1-8
말 씬 : 인자가 올 때(8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8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5장
기 도 : 명기룡 집사
찬 송 : 421장
성 경 : 시 145:1-9
특 송 :
말 씬 : 위대한신 주(14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04강)

■ 교회소식 ■

1. 2014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가정
에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부가 필
요하신 가정은 나중에 여분이 있을 때 가
져가시면 됩니다.
2. 천안시에 위치한 재건신학원 본관 준공식
이 19일(목)11:30분에 신학원 강당에서 있
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김윤정 집사

이단 ⑥1

지방교회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
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인성과 신성이 혼합
되어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존재였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성이 거
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 전에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하
나님이시고 다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임을 증거한다(빌 2:5-8). 그러
므로 예수님께 인성과 신성의 혼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영화롭게 된 것이다.

위트니스 리가 예수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 시각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
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한 가현설에서 나온 영지주의적 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트니스 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삼분설, 즉 인간은 영, 혼, 육의 구
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영은 완전하고 선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
는 부분이고, 혼은 자신의 자아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며,
육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히 4:12절에 두고 있지만 히
4:12절에서 언급된 혼과 영과 골수는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영과 육으로만 구분하여 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삼분설은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트니스 리가 말하는 삼분설에서 인간의 구조 중 하나인 영을
완전하고 선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인간에게는 완
전하고 선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의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말하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 구성체에 대한 말이 아니다. 육이라는 것도 하나님
과의 관계 밖에 있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흔히 생각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위트니스 리는 인간의 몸을 사단을 받아들인
사단의 거처로, 영은 하나님의 거처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사단의 거처인 타락한 몸으로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
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사단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런 의
미에서 십자가를 사단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
자는 죄를 멸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대
신 '오 주 예수여' 라고 외치면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독교론과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구원
론도 잘못되어 있다. 이들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던 사단이 제거 되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영안에 계심
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 되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언급했던 신일합일의 상태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구원관 또한 성경을 벗어
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위치난 니와 위트니스 리
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따르는 지방 교회는 참된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집착한 또 하나의 종교적 이단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